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3. 13.(금) **즉시보도**

행안부 장관, 일본 총무·디지털·방재 대신 면담

-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정책 협력 확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목)부터 3월 13일(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총무대신 면담>

- 윤 장관은 3월 12일(목)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대신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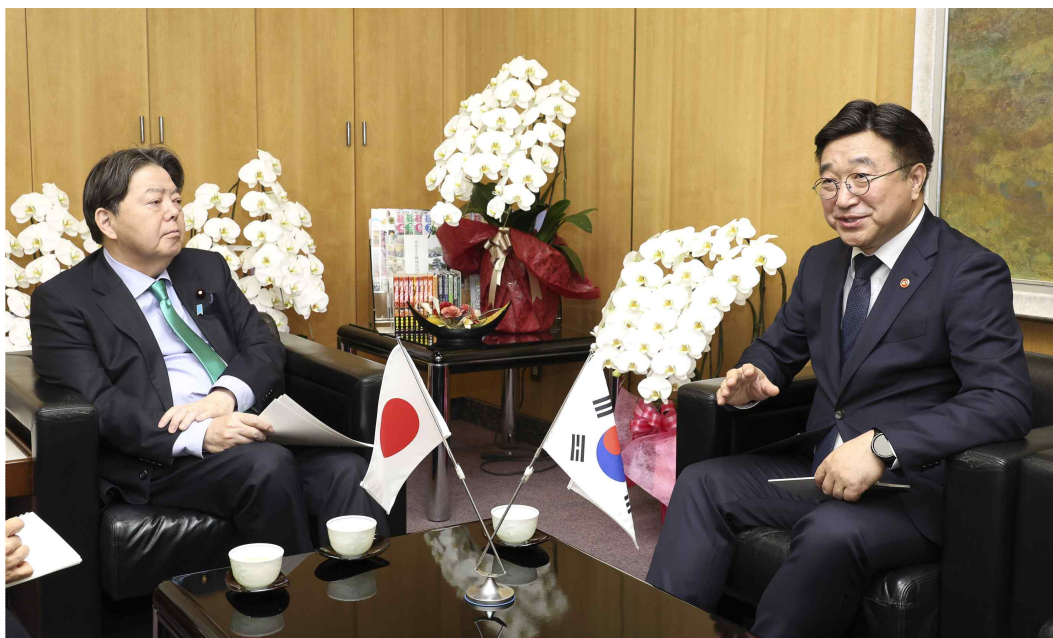
- 윤 장관은 3월 13일(금) 마쓰모토 디지털대신과 면담을 갖고 공공 인공지능(AI) 정책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가 중점 추진 중인 ‘AI 민주정부’와 ‘AI 국민비서’ 서비스 등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윤 장관은 지난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일본 디지털청 간 ‘공공 인공지능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고, 이는 체결될 경우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국 간 최초의 협력 양해각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대신 면담>

- 이어서 윤 장관은 아카마 방재대신과의 면담에서 올해 일본 방재청 신설(2026년 11월 예정)을 계기로,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재난관리 협력 MOU의 재체결 등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윤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방재청 신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설립 경험 등 재난안전관리 전문 기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2027년에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방재 각료급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우리 정부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조형선 (044-205-1841)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044-205-1842)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원갑 (044-205-2702)
		담당자	사무관	김종강 (044-205-2720)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상훈 (044-205-5110)
		담당자	사무관	한광순 (044-205-5121)

□ 총무대신 면담



□ 디지털대신 면담



□ 방재대신 면담

